

‘남북교육교류 국제 포럼’ 개최한다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

학술대회 통해 국내외 전문가 정보·경험 교환

‘평화와 인권 도시’ 광주에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북 교육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국제학술행사가 열린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부터 31일까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 ‘남북교육교류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에는 주요 인사 초청 토크콘서트, 국내외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학술대회, 북한의 최근 영상 등을 담은 통일 VR(가상현실) 체험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30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에는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개막선언에 이어 북한을 통해 유럽으로 가는 육로를 만들기 위한 ‘코라시아 로드런’의 이사이며 가수인 김원중이 축하공연을 한다.

토크콘서트는 ‘평화롭게 함께 더불어 사는 통일, 교육으로부터!’를 주제로 방송인 김미화씨의 사회로 진행된다. 장휘국 교육감, 송영길 국회의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민희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 김향미 서림초등학교 교사, 이민정 광주학생회회의

장(윤남고) 등이 참여한다. 행사 둘째날인 31일 오전 10시부터는 국제학술행사가 3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이어진다.

이밖에 북한의 주요 명소를 가상현실로 체험하고, 광주지역 학생들의 통일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는 부대행사도 눈길을 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1층 로비에서는 KT의 후원으로 마련된 ‘통일 VR(가상현실) 체험’이 진행된다.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 판이 북한에서 촬영한 △판문점 투어 △평양의 명소 △평양의 대중교통 △평양의 길거리 △북한의 기차 △백두산 △하늘에서 본 북한 등의 영상을 체험할 수 있다.

광주통일관의 협조를 얻어 마련된 ‘이동통일관’에서는 남북 정상

회담 등 사진과 북한 물품 전시, 북한 애니메이션 상영, 북한 음식체험이 마련된다.

또 광주 지한초, 두암중, 체육고, 설월여고, 전남여고 등 학생 평화통일 동아리 활동 사례와 광주시교육청 현직연구원들이 실시한 ‘북한 수학여행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도 전시된다.

광주시교육청 현석동 정책기획과 과장은 “평화 공존, 화해 협력을 기반으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남북 교육교류가 중요하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북교육교류 확대를 위한 학술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국제 학술행사를 마련했으니 부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혁신교육지구(성찰과 나눔) 실행연수

담양교육지원청



담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1일 담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담양혁신교육지구 지원단, 혁신(자율혁신)학교, 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혁신 전담회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열린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실행연수에서는 혁신학교, 담양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사업을 분석하여 2020년 혁신교육지구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

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학교혁신 전담회를 위한 사업 과제 설정, 혁신교육지구의 질적 성장, 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담양혁신교육지구의 방향 및 추진 사업을 분석하여 유지할 사업, 잘하는 사업, 축소해야 할 사업, 확대해야 할 사업, 추가해야 할 사업을 선정하였다. 학교 혁신 전담회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질문과 답변, 정보 공유, 논의 등 열린 토론으로 담양 혁신교육지구를 함께 만들어갔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시교육청, ‘한글 점반침 깨치기 직무 연수’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22일 ‘2019학년도 한글 점반침 깨치기 직무 연수’

를 월봉초등학교 1학년 4반(담임 임정임)에서 온오프라인 수업공개와 더불어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7월, 한글책임교육에 대한 1학년 담임교사 660여명의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선생님들이 한글을 지도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점반침지도였으며, 이에 한글책임교육현장지원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 연수를 마련하게 되었다.

수업을 참관하면서 점반침 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배움을 살피고

함께 지도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수의 목적이 있다.

더불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수업 및 협의회 과정을 수업 나눔 플랫폼(t-tube.net)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공유했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해 점반침 지도 모델을 개발하여 2020 한글책임교육 교재인 ‘뚝뚝글지놀이’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김소영 장학사는 “앞으로도 한글책임교육에 대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다양한 지도 사례를 바탕으로 한글책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여고, 사제동행 목포 골목길

체험 통한 민주주의 역사체험



목포여자고등학교는 최근 사제동행 인권 동아리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동아리와 함께 목포 골목길 체험을 통한 민주주의 역사체험을 실시하였다.

이 날 행사는 사제동행 인권 동아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창체 동아리로 활동 중인 미술 관련 동아리 ‘드로잉’, 도서관 활동 관련 동아리 ‘페이퍼’, 학교교지 제작 관련 동아리 ‘한빛’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하고, 골목길 해설사 세 분을 모시고 목포의 근·현대 역사, 문화, 민주주의 발자취를 공감해 보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다수의 학생들은 골목길 체험을 통해 우리 고장 목포에도 다양한 문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벽화골목

길을 통해 바쁜 학교 일정으로 갖지 못했던 친구들의 사이가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뜻깊은 체험행사였다고 소감을 발표하였다.

또한 함께 참여했던 미술동아리 ‘드로잉’의 학생들은 교내 벽화작업 중에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문학과 거리와 벽화거리를 직접 체험하고 찾아감으로써, 이후로도 새로운 골목길을 통한 민주주의의 소양을 기르고 나와 다른 삶의 공간과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 배움을 갖고 싶다는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목포여자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사제동행 인권 체험활동의 일환인 ‘목포시 골목길을 통한 민주주의 역사체험’을 통해 나와 다른 삶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탄구해 가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교육청, ‘2020 유치원입학시스템’ 내달 1일 오픈

전남도교육청의 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은 공·사립 구분 없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이뤄진다.

전남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을 위해 오는 11월 1일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https://www.go-firstschool.go.kr>)를 오픈한다고 22일 밝혔다. 여기에는 도내 505개(공립 402개 / 사립 103개, 10월1일 현재) 공·사립유치원

전체가 참여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유아의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온라인을 통해 원서접수, 선발,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유치원입학관리 시스템이다. 학부모들에게 유치원에 직접 방문·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온라인 추천으로 공정한 선발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4일 전남도 유치원 유아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0년 유아모집부터 도내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유아 모집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그동안 TF 운영 및 업무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해 시스템 안착을 위해 노력했다.

2020학년도에 자녀의 유치원 입학에 원하는 학부모는 11월 1일부터 학부모 회원가입 및 자녀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또, 입학에 희망하는 유치원을 검색해 모집

요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신입생은 3개 유치원, 재원생은 2개 유치원까지 접수해 희망하는 유치원에 지원·선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모집요강의 우선모집과 일반모집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 선발 결과는 우선모집 11월 12일, 일반모집 11월 26일에 발표된다.

도교육청 정해지 혁신교육과장은 “올해로 세 번째 시행되는 ‘처음학교로’는 공정한 선발 및 학부모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전체 공사립유치원의 참여로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